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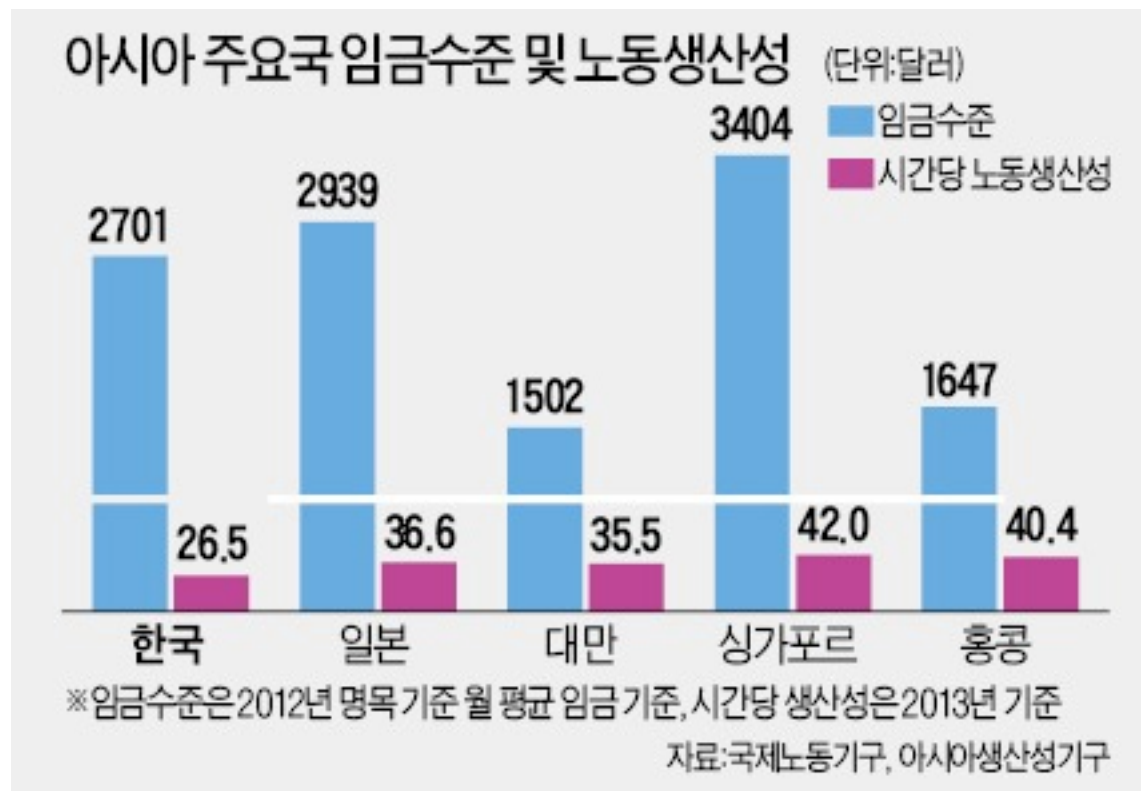
Name of publication: DB Hankyung (17 November 2014, Republic of Korea)

Page: <http://db.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1743821>

한국, 대만·홍콩보다 생산성 낮고 월급 많아

입력 2014-11-17 20:47:16

商議, 아시아 경쟁국 근로수준 비교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대만, 홍콩 등 주변국보다 낮지만 임금수준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2193시간인 데 비해 싱가포르는 2287시간, 홍콩 2344시간이었다. 대만은 2144시간으로 한국과 비슷했다. 2012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2289시간인 반면 싱가포르는 2409시간이었다.

지난 30여년간 근로시간 감소도 한국이 훨씬 가팔랐다. 한국은 1980~2011년 연평균 근로시간이 18.4% 줄어들어 같은 기간 대만(-16.9%), 싱가포르(-3.6%), 홍콩(-0.6%) 등의 근로시간 감소율을 웃돌았다. 노동생산성도 한국은 아시아 경쟁국보다 크게 뒤졌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가 조사한 시간당 노동생산성(2013년 기준)을 보면 한국은 26.5달러에 그친 반면 대만 35.5달러, 싱가포르 42달러, 홍콩 40.4달러였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는데 임금수준은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2701달러로 일본(2939달러)과 싱가포르(3404달러)보다는 낮지만 대만(1502달러), 홍콩(1647달러)보다는 높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